

한승택 가서 KIA 안방 경쟁 2막

복귀 무대에서 멀티홈런·안정된 수비로 눈도장
김민식 주전 굳히기 속 백용환과 3파전 양상



‘위기를 기회’로 만든 KIA 타 이거즈의 한 승택이 안방 싸움에 다시 불을 붙였다. KIA 타이거즈는 2018시즌을 시작하면서 ‘우승 포수’인 김민식을 필두로 한승택, 백용환 세 명의 포수로 개막 엔트리를 구성했다. 다른 팀들이 ‘포수난’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KIA는 ‘누구를 말소해야 하나’는 고민을 했다. 팀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었지만 한승택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한승택은 지난 3월 28일 선발 등판에 나서는 투수 이민우에게 자리를 내주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 시즌 96경기에 나와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보냈던 한승택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약점으로 꼽힌 타격 강화를 위해 겨우내 공을 들였다. 하지만 한승택은 치열한 안방 경쟁이 전개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김민식이 주전 포수로 자리를 굳힌 가운데 백용환도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안방을 지키면서 한승택의 기다림은 길어졌다. 그리고 지난 25일 백용환이 무릎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두 달 만에 한승택이 1군으로 복귀했다. 복귀 첫날 NC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장한 한승택은 이날 자신의 프로 데뷔 홈런은 물론 멀티홈런을 터트리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27일에는 덕수고 선배인 한승혁과 배

터리를 이뤘 NC 타자들을 1실점으로 봉쇄 하면서 팀의 올 시즌 첫 원정 위닝 시리즈를 이끌기도 했다.

뛰어난 프레이밍을 앞세운 안정된 수비에 매서워진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한승택은 KIA의 포수 경쟁 2막을 열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생각한 한승택의 기다림이 빛을 발했다.

한승택은 “2군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기회가 많을 것이니까 준비를 잘 하라고 생각했다”며 “1군에서는 타석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2군에서 계속 시합을 하면서 스윙, 타이밍 잡는 법을 배우자는 각오였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타석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공을 끌어들이려고 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타이밍을 앞에 놓고 가려고 한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옆에서도 자신 있게 하라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타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한승택은 ‘포수’라는 자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한승택은 “1군 복귀하고 처음 스타팅 나갈 때 한국시리즈 하는 것처럼 긴장이 됐다(웃음). 팀 연패 상황이기도 했고, 중요한 자리니까 더 그랬던 것 같다”며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2구 송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나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수비에 가장 신경쓰고 욕심이 난다. 안정감 있고, 여유있는 포수로 팀 승리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7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주말 3연전 세번째 경기 2회초 2사 2루에 KIA 한승택 1타점 2루타를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넥센, 이면 계약 131억5천만원 '뒷돈'

KIA도 김병현 데려올 때 5억 없었춰

넥센 히어로즈블 '이면 계약 트레이드' 논란이 뜨겁다. KIA 타이거즈도 현금 트레이드 구단에 이름이 올랐다.

KBO는 “29일 히어로즈 구단과의 현금 포함 트레이드 계약 중 신고하지 않거나 발표와는 다른 계약이 있었음을 보고받았다. 이에 KBO는 해당 구단들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 계약 사실을 검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KB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넥센은 23번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총 131억 5000만원의 뒷돈을 챙겼다. 또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이 모두 이면 계약을 통해 넥센과 KBO리그 구약에 위반되는 트레이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이택근을 LG 트윈스로 보내고 강병우와 박영복을 받은 트레이드가 시작점이다. 당시 KBO의 승인 조건은 25억원이지만 실제로 히어로즈가 LG에게 건네받은 돈은 13억원이 더 많은 38억원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 트레이드인 올해 1월 12일 채태인과 박성민(롯데)의 트레이드 때도 2억원을 챙겼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41억원

을 히어로즈에 건넸고, 이어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각각 28억원과 20억원을 각각 뒷돈으로 챙겨줬다.

KIA도 이번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KIA는 2014년 4월 10일 좌완 김영광을 내주고 ‘핵 잠수함’ 김병현을 데려오면서 5억원을 히어로즈에게 얹어줬다.

한편 히어로즈와 KIA를 포함해 KBO리그 구약을 어긴 9개 구단은 “과거 있었던 잘못된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KBO와 함께 리그의 회원사로써 전 구단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KBO는 구단들의 자진 보고를 바탕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정밀 확인 작업을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상벌위원회 개최 및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 KBO는 지난해 3월 17일 히어로즈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히어로즈 윤석민과 kt의 정대현-서의태 등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는 다른 현금 포함 이면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야구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히어로즈 트레이드 현황

구분	일자	내용	승인 조건	실제 금액	
1	2009.12.30	이택근(히)	강병우, 박영복(L)	25억원	38억원
2	2009.12.30	장원삼(히)	김상수, 박성훈(삼)	20억원	35억원
3	2009.12.30	이현승(히)	금민철(두)	10억원	30억원
4	2010.3.12	마일영(넥)	마정길(한)	3억원	12억5천만원
5	2010.7.22	황재균(넥)	김수화, 김민성(롯데)		20억원
6	2010.12.22	고원준(넥)	이정훈, 박정준(롯데)		19억원
7	2011.7.31	송신영, 김성현(넥)	심수창, 박병호(L)		15억원
8	2012.5.2	전우수(넥)	최정철(S)		-
9	2012.7.9	오재일(넥)	이성열(두)		-
10	2012.11.20	임창민, 최화준(넥)	김태형(N)		7억원
11	2013.4.18	지석훈, 이창성, 박정준(넥)	송신영, 신재영(N)		-
12	2013.4.25	최정철(넥)	서동욱(L)		-
13	2013.11.26	장민석(넥)	윤석민(두)		-
14	2014.2.11	조준근(넥)	KT	없음	-
15	2014.4.10	김병현(넥)	김영광(K)		5억원
16	2015.4.8	이성열, 허도환(넥)	양훈(한)		-
17	2016.3.22	김대우(넥)	채태인(삼)		-
18	2016.4.6	서동욱(넥)	KIA	없음	-
19	2017.3.17	강윤구(넥)	김한별(N, 육성)		1억원
20	2017.5.18	김태형(넥)	김성민(S)		-
21	2017.7.7	윤석민(넥)	정대현, 서태현(KT, 육성)		5억원
22	2017.7.31	김세현, 유재신(넥)	손동욱, 이승호(K, 육성)		-
23	2018.1.12	채태인(넥)	박성민(롯데, 육성)		2억원

타격 살아난 정성훈 “비결은 영업 비밀”

덕아웃 T 특특

▲ 영업 비밀입니다 = “공이 뜨지 않는다”며 고민하던 베테랑 정성훈이 ‘홈런 타자’로 변신했다. 정성훈은 지난 29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9회 무사 1루에서 조력구를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는 등 최근 16타석에서 3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 타격 고민이 많았던 정성훈은 최근에는 때때로 스윙을 보이며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달라진 게 없느냐”는 질문에 정성훈은 “영업 비밀이다. 은퇴하면 말해주겠다”며 웃은 뒤 “타격을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타격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 “나처럼 해보라”고 하셔서 = 30일 넥센과의 경기를 앞두고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타격 훈련. 나란히 훈련을 마치고 들어온 포수 한승택과 베테랑 정성훈은 잠시 덕아웃에 서서 대화를 나눴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면서 후배에게 무언가는 이야기를 한 정성훈. 한승택은 “2군에 가기

전에 선배님이 나처럼 타격을 해보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다. 2군에서 비슷하게 타격을 해봤는데 잘 맞았다. 스윙 꺾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타자 입장에서 부러운 점은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몸회전이 정말 좋으시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도 빨리 나오고 컨택 능력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마음은 스트라이크인데 = 마음과 다른 결과가 아쉬운 고졸 2년 차 투수 유승철이다. 늘 밝은 표정의 막내 유승철이지만 30일 훈련 시간에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전날 넥센과의 경기에서 0.2이닝을 소화하면서 불넷을 4개나 내준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유승철은 “마음은 스트라이크인데 공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가고 있다. 밸런스가 안 좋아져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끝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남아서 훈련을 하고 있다. 양현종 선배가 지나가다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며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

2연속 준우승 김아림 이번엔 우승할까

KLPGA 롯데 칸타타 오픈 내일 개막

잠재력은 인정받았지만 아직 우승은 없는 ‘신승 강자’ 김아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에서 진가 증명이 나선다. 김아림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319야드)에서 열리는 2018시즌 11번째 KLPGA 투어 제8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김아림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상승세다. 앞서 열린 2개 대회에서 연속 준우승을 거둔 것이다. 김아림은 지난 16~20일 두산 매치플레이

이 챔피언십에서 ‘골프 여제’ 박인비와 접전을 벌이다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25~27일 E1 체리티 오픈에서는 맹추격 끝에 공동 2위에 올랐다. 2013년 입회, 2016년 데뷔한 김아림은 175cm 큰 키에서 뿜어내는 장타로도 눈길을 끈다. 김아림은 2018시즌 KLPGA 투어 드라이트 비거리 1위(263.333야드)를 탈리며 ‘제2의 박성현’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꾸준한 활약으로 상금 3위, 대상 포인트 4위로 각종 부문 상위권에도 포진했다. /연합뉴스

8년만에...광주일고 오늘 황금사자기 우승 도전

추신수 시즌 9호 홈런

준결선서 경남고에 3-2 역전승

광주일고가 황금사자기 정상 탈환에 나선다. 광주일고는 3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남고와의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선주말리그 왕중왕전 준결선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뒀다. ‘난쟁이’ 덕수고에 이어 경남고까지 제압한 광주일고는 31일 오후 6시 목동구장에서 대망의 결선전을 치른다. 지난 2010년 황금사자기 우승컵을 품었던 광주일고는 8년 만에 정상을 노리게 됐다. 광주일고는 앞선 8강전에 이어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왔다. 1초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유장혁이 도루에 이어 상대 실책으로 3루까지 향했

다. 이어 박시원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1회말 수비에서 바로 역전을 허용했다. 1사에서 2루수의 실책이 나왔고, 중견수 플라리로 투 아웃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상대 4번 타자 노시환을 고의사구로 내보낸 뒤 이주형의 타구가 우중간을 가르면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에 들어왔다. 1-2에서 맞은 6회말. 상대 3루수 실책에 이어 정건석의 우전 안타가 나왔다. 더블 스틸로 무사 2-3루를 만든 광주일고는 유장혁의 중견수 플라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정건석의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나왔다. 상대 폭투 때 3루로 향하던 정건석이 아웃되면서 투 아웃이 됐다. 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창평의 3루타가 나왔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6회 역전 기회에서 고개를 숙였던 정건석이 8회에는 주인공이 됐다. 2-2로 맞선 8회 1사 2루에서 타석에 선 정건석은 좌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역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조준혁이 7.1이닝 5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2실점(비자책)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다. 구원 등판한 정해영이 1.2이닝동안 피안타 없이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켰다. 한편 정건석과 정해영은 ‘야구인 가족’으로 각각 넥센 서건창의 사촌 동생, 정희열 KIA 수석코치의 아들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 출신 빅리그 최다 홈런 타자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3경기 만에 다시 아치를 그렸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1회초 첫 타석 2볼-노스트라이크에서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시속 145km 싱킹 패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 가운데 담을 넘겼다. 팀에 1-0 리드를 안기는 시즌 9호 홈런이다. 추신수는 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빅리그 통산 176호 홈런을 때려 마쓰이 히데키(일본)를 제치고 아시아 최다 홈런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